

# 한국어에 능격성이 존재하는가: 능격의 개념과 다양한 사용

연 재훈 (런던대학교 소아스)

<벼리>

이 논문에서는 ‘능격’의 개념을 검토하고, 한국어에 능격성을 적용한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한국어에는 능격성이 없음을 주장할 것이다. 한국어는 대격언어이다. 따라서 소위 ‘능격언어’에서 명사구에 나타나는 격의 한 형태인 ‘능격’이라는 개념을 대격언어인 한국어에, 그것도 명사구의 격이 아닌 동사에 붙여 ‘능격동사’라는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형태론적 격 현상이나 통사적 관점에서의 능격성이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소위 어휘 의미적 측면에서의 능격성은 세계 거의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일종의 ‘무표적 사동문’ 대응 관계나 ‘중립동사’ 구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할 것이다. 이런 부류의 동사들을 ‘능격동사’라고 부르는 것은 할리데이(1967)와 라이온즈(1968)에서부터 시작된 명백한 오용이다. 6절에서 살펴 볼 생성문법 학자들의 연구는 능격동사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격교체 구문과 같은 예외적 격표지 현상, 단어 형성에서 보이는 특이성, 어휘 의미적인 문법적 특이 현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유형론적으로 능격언어에서 보이는 능격의 개념과는 다른 관점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능격, 비대격, 능격동사, 능격 언어, 대격 언어, 절대격, 언어유형론, 무표지 사동문, 중립동사

## 1. 들어가기: 술어의 문제

유형론적 관점에서 언어는 대격(accusative) 언어와 능격(ergative) 언어로 나뉜다. 능격 언어의 전형적 타동문 구성은 능격-절대격(ergative-absolutive)의 구조를 갖고, 대격 언어의 전형적 타동문은 주격-대격(nominative-accusative) 격표지를 갖는다. 그러나 한 언어의 격표지 체계는 이러한 전형적 격표지 체계 이외에도 다양한 비전형적 혹은 비일관적 격표지 양상을 보여 준다. 소위 능격 언어에서의 '쪼개진 능격'(split ergativity) 구성이 잘 알려진 예이다.

Ergative라는 말은 원래 'cause, bring about, create'를 의미하는 희랍어 동사로부터 만들어진 단어인데 (라이온즈(Lyons) 1968: 352), 종래에 바스크어나 조지아말, 또는 몇몇 호주 원주민 언어들의 격 현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던 술어이다. 이 술어에 대한 역어는 197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상억(1970/1999: 117)에서 처음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sup>1)</sup>.

(1) "ergative case는 '역격'(役格) 또는 '인격'(因格), '의격'(依格)등이 가당할 것이고,

1) 1970년대 이전에도 김민수(1964) 등에서 보이기도 한다. 이상억 교수의 기억에 의하면, 1960년대 말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박순함 교수 등의 언어학자들이 ‘능격’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상억(1970)의 시안은 ‘능격’이라는 술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내세운 고민의 흔적이라고 하였다.

ergativity는 '역동성'(役動性)이 어떨까 한다”.

그런데 이상익(1972)에서는 일본학자 야스이 (安井 1971)을 본받아 '능력'이라는 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 국어학계에서 별 반성 없이 이 용어가 받아들여져 사용되어 온 듯하다. 그러나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그 원래의 개념(cause, bring about, create)이 잘 연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상익(1970)에서 처음 제안된 역어들이 원 개념에는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이향천(1991)에서는 '원인격'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고, 연재훈(1996)에서도 '원인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능력'이라는 술어보다 '원인격'이라는 술어가 'ergative'의 개념을 잘 표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 언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능력'이라는 술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능력언어 형태론 개관

이 논문<sup>2)</sup>에서는 능력의 개념을 검토하고, 한국어에 능력성을 적용한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한국어에는 능력성이 없음을 주장할 것이다. 우선, 자-타동문의 세 가지 기본 의미-통사 관계를 다음과 같은 약호로 표시해 보자:

- (2) 자동 구문의 주어 자리 의미 기능: S
- 타동 구문의 주어 자리 의미 기능 (능동자): A
- 타동 구문의 목적어 자리 의미 기능 (수동자): P

어떤 언어가 S와 A를 동일한 격표지(주격)로 표시하고 P를 다른 격표지(대격)로 표시하면 그것은 (주격-)대격 언어이고, S와 P를 동일한 격표지(절대격)로, 그리고 A를 능력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표지로 표시하면 그것은 능력(-절대격) 언어이다. 이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3)	대격 언어			능력 언어
		A -----		Ergative
	Nominative <	S		
		>		Absolute
	Accusative -----	P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4) 대격 언어: 한국어
- 가. 영수-가 죽었다.
- 나. 영수-가 미아-를 죽였다.

2) 이 논문의 중심적 논의는 연재훈(2005)에 토대를 두고 있고, 고흥주(2001)과 함희진(2005)의 논의도 많이 참고로 하였다.

(5) 능격 언어: Warrgamay(Australian) (Dixon 1979)

- a. Nulmburu    gaga-ma  
   woman-Abs go-Fut  
   "The woman will go."
- b. maal-du    Nulmburu    Nunda-lma  
   man-Erg    woman-Abs    see-Fut  
   "The man will see the woman."

한국어에서는 S와 A가 주격으로 나타나고 P는 대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5)에서는 S와 P가 절대격으로, A는 능격으로 표시되고 있다. 위의 예문만을 본다면, 대격언어와 능격언어의 구분이 그래도 명확하고, 그 나름대로 일관된 격표지 행태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언어 안에서도 비일관적 격표지 행태가 종종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대격과 능격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목격된다. 유형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능격언어에서의 '비일관적/쪼개진 능격' 격표지가 그 한 예이며, 대격 언어에서도 비일관적 격표지 행태를 발견할 수 있다.

딕슨(Dixon 1979)에 따르면, 범언어적으로, 비일관적 혹은 쪼개진 능격 행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6) (A) 동사의 의미특성에 따라 (Split conditioned by semantic nature of verb)
- (B) 명사구의 의미특성에 따라 (Split conditioned by semantic nature of NPs)
- (C) 시제와 상에 따라 (Split conditioned by aspect/tense of sentence)
- (D) 주절이나 종속절이냐에 따라 ('Main' vs. 'Subordinate' clause split)

지면 관계상 몇 가지 예만 들어보자. 우선 (B)에 해당하는 예 한 가지를 살펴보겠다. Warrgamay에서는 명사구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격표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명사와 3인칭 대명사의 경우에는 능격 언어의 격표지 특성을 보여주고, 1/2인칭 대명사의 경우에는 대격언어의 격표지 특성을 보여준다. 1인칭과 2인칭 대명사가 쓰이고 있는 다음 예문과 명사가 쓰이고 있는 예문 (5)를 비교해 보자.

- (7) a. Nana            gaga-ma.  
      we (Nom) go-Fut  
      "We go."
- b. nyuurra        Nana-nya        Nunda-lma.  
          you (Nom) we-Acc            see-Fut  
          "You will see us."

(5)에서는 능격 언어의 격표지 특성을 보여 주었던 언어가 (7)에서는 대격 언어의 격표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쪼개진 능격' (split ergativity) 현상을 보여 주는 조지아말(Georgian)<sup>3)</sup>을

3) 조지아말의 형태론과 소위 '쪼개진 능격성'에 대해서는 연재훈(1993)을 참고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A)와 (C)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예를 보여준다. 조지아말에는 1유형부터 4유형까지 네 가지 부류의 동사군이 있는데, 일반적 타동사군이 속해있는 1유형, 피동사를 포함한 자동사군이 속해있는 2유형, 소위 중립동사(middle or medial verb)가 속해 있는 3유형, 감정동사군을 포함하는 4유형 중에서 능격 구성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타동사군이 속해 있는 1유형의 타동사군이다 (연재훈 1993나: 260). 이렇게 동사의 유형에 따라 능격 구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A)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조지아말에서는 문장의 시제와 상에 따라 격표지 행태가 달라지는데, 과거 시제의 경우에만 능격 체계가 나타나고 비과거(현재나 미래) 시제 문장에서는 대격 체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비일관적 격표지 행태는 (C)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8) a. st'alín-i    tav-is    mt'r-eb-s    ga-(o)-zlet'-s  
       Nom    his own    enemy-pl-Dat    he=will=exterminate=them  
       "Stalin will exterminate his enemies."  
       b. st'alín-ma    tav-is-i    mt'r-eb-i    ga-(o)-zlit'-a  
       Erg    his own-Nom    enemy-pl-Nom    he=past=exterminate=them  
       "Stalin exterminated his enemies."

위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미래 시제가 쓰인 (8a)에서는 주어 논항에 주격이 나타나고 과거 시제가 쓰인 (8b)에서는 주어 논항에 능격이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조지아말의 격표지 현상은 물론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언어 사실에 의해서 변이되는 비일관적 격표지 현상도 보여주는데, 우리의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조건에 따른 격표지 행태의 교체 이외에도 여러가지 예외적 격표지 양상이 나타난다. 그 중 하나가 소위 행동주형 언어(Active-type language)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언어에서는 자동사문의 주어가 의미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격으로 표시된다. 즉, 자동문의 주어가 의도성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격표지를 취한다. 예를 들어, 라사 티베트말에서는 의도성을 갖는 자동문의 주어는 능격을 취하고, 의도성이 없는 자동문의 주어는 절대격을 갖는다. 다음 예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 (9) Active type language: Lhasa Tibetan (DeLancey 1984: 132)  
       a. na-s    stag    bsad-pa-yin.  
       I-Erg    tiger    kill-Perf/Volitional  
       "I killed a tiger."  
       b. na-s    nus-pa-yin.  
       I-Erg    cry-Perf/Volitional  
       "I cried."  
       c. na    si-byun  
       I    die-Perf/Involitional  
       "I died."

(9b)에서는 주어가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를 갖고 우는 것이고, (9c)에서는 주어가 죽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소위 행동주형 언어에서는, 타동문의 주어 A는 일관되게 능격 표지를 받는 반면, 자동문의 주어 S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격표지를 받는다. 즉, (9b)처럼, 주어가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능격 표지를 갖지만, (9c)처럼, 주어가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 비의도성 주어인 경우에는 절대격 표지(무표지)를 갖는다.

또 한편, 어떤 언어에서는 자동사문의 주어 뿐만이 아니라 타동사문에서도 주어의 의도성이나 행동성 여부에 따라 타동주어가 상이한 격표지를 받기도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0) Batsby (Volitionality of A) (Comrie 1981, Shibatani 1983)

- a. tXo            naizdraX            qitra.  
we (Nom)      to-the ground fell  
"We fell to the ground (unintentionally)."
- b. atXo            naizdraX            qitra.  
we (Erg)  
"We fell to the ground (intentionally)."

예문 (10)은 전형적 타동구성은 아니지만, 2개의 명사구 논항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예문 (9)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10a)에서는 주어가 넘어지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경우이고 (10b)는 주어가 의도적으로 넘어졌다는 의미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어의 행위에 있어서 의도성의 정도 차이에 따라 (a)에서는 주격이 (b)에서는 능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능격 언어에서 나타나는 비일관적 격표지 행태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비일관적 격표지 행태는 능격 언어 뿐만이 아니라 대격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sup>4)</sup>. 1950년대 이전의 연구를 보면 능격 언어의 격표지 현상을 형태론적 특이성 (morphological idiosyncrasy) 이라고 간주하고, 이런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주격-대격 언어 화자와 다른 방식으로 사유한다고 간주하기도 하였으나 (콤리 1978), 격표지 현상을 인간의 사유 방식이나 세계관의 차이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현재는 일반적이다 (딕슨 1994). 이제 다음 장에서는 소위 ‘능격동사’라는 술어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3. ‘능격동사’라는 술어의 오용

필머터가 관계 문법에서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란 용어를 사용한 이후 생성문법 연구자들 중에서는 비대격 동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능격동사 (ergative verb)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도 한국어에 ‘능격동사’를 설정하고 종래에 대격성의 관점에서 처리되어 온 단어 및 문장의 형성과정을 능격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능격동사’라는 술어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어는

4) 연재훈(1996)은 한국어 여격주어구문(여격-주격)을 대격언어에 나타나는 비일관적 격표지 구문의 하나로 분석한 예이다.

대격언어이다. 따라서 소위 ‘능력언어’에서 명사구에 나타나는 격의 한 형태인 ‘능력’이라는 개념을 대격언어인 한국어에, 그것도 명사구의 격이 아닌 동사에 붙여 ‘능력동사’라는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주격동사’, ‘여격동사’, ‘대격동사’라는 술어가 적합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굳이 해석하자면 ‘능력동사’는 능력을 보어로 취하는 동사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위 ‘능력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능력을 보어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형태론적 개념이라면 그것을 한국어에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한국어에 언어 유형론에서 말하는 통사적 능력성<sup>5)</sup>이 존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능력동사’가 어휘-의미적 개념이라면 이러한 부류의 특이한 행태를 보이는 동사 부류는 세계 어느 나라 언어에나 존재하는 현상이므로 한국어에도 이런 부류의 동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이것을 능력동사라고 부르는 것은 할리데이(Halliday 1967)와 라이온즈(1968)에서부터 시작된 명백한 오용이다. 라이온즈는 다음과 같은 문장 쌍에서 관찰되는 통사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서 언어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술어가 ‘ergative’라고 소개하고, 타동문의 ‘John’이 ‘능력 주어’(ergative subject)라고 하였다.

- (11) a. The stone moved
- b. John moved the stone.

라이온즈는 그 당시 이 술어가 언어학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당시 이런 관계를 ‘ergative’라는 말로 기술한 사람은 할리데이 한 명뿐이었다. 라이온즈가 편집자로 있던 학술지<sup>6)</sup>에 할리데이가 이 술어를 사용하였고, 라이온즈는 편집자로 이 논문을 읽으며 그것이 일반적인 용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딕슨(Dixon) 1994: 19 각주 15 참고)<sup>7)</sup>. 그러나 이런 관계는 ‘무표지 사동문’ (null-marked causatives)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능력’은 아니다. 딕슨(1994:20)도 어휘의미적 또는 사동적인 의미로 ‘ergative’라는 술어를 쓰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술어의 오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르시오(Burzio 1981)와 페체츠키(Pesetsky 1982)도 위와 같은 문장에서 S와 O를 ‘ergative set’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능력(ergative)이 아니라 절대격(absolutive)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ergativ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세계의 모든 언어는 ‘ergative’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하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언어에 이런 종류의 특이한 사동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어와 독일어는 능력언어가 아니고, 세

5) 통사적 능력성이란 등위접속문에서 생략된 후행절의 주어(S)가 선행절의 P 성분과 공지시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영어와 같은 대격 언어에서는 The doctor hit the man and (?) came here와 같은 문장에서 후행절의 생략된 주어는 the doctor를 지시하지만, 지르발(Dyirbal)과 같은 능력 언어에서는 생략된 주어가 the man을 가리킨다. 다음 예문을 참고하라.

yara	gabi-nggu	balgan	(yara)	baninyu
man(Abs)[P]	doctor-Erg[A]	hit	(man) [S]	came-here

6) 영국 언어학회 학술지인 Journal of Linguistics를 가리킴.

7) 라이온즈의 책이 그 당시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용어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고, 그 이후 ‘음성언어학 사전’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을 저술한 크리스탈 (Crystal 1991: 124-5)도 똑같은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계 언어의 약 1/4 정도만이 형태적 능격성을 보이며, 통사적 능격성을 보여주는 언어는 열 손가락을 헤아린다고 하였다. (딕슨 1994: 20).

형태 변화없이 자/타동사로 쓰이는 이런 부류의 동사들은 ‘중립동사’ (연재훈 1989), ‘자타양용동사’ (김문오 1997)<sup>8)</sup>, ‘중간동사’ (우형식 1996) 등의 술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생성 문법 내지는 보편문법에서 말하는 ‘능격동사’는 자동사 부류 중에 비행위자성 주어만을 허용하는 동사의 한 부류, 달리 표현하면, 기저에서 외재논항(주어)이 아닌 내재논항(목적어)을 논항으로 갖는 동사의 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유형론에서 말하는 ‘능격’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오히려, ‘비행위(자)성 자동사’나 ‘비행동(주)성 자동사’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 4. 선행 연구들과 개념 혼선

능격성을 다룬 선행연구들마다 능격성의 개념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는 격체계상 주격과 대격으로 이루어진 대격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격과 능격의 격체계를 상정하는가 하면, 자동사와 타동사로 형태변화 없이 사용되는 일부 동사의 부류를 ‘능격동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로운 주어를 도입하는 사동문을 능격성의 관점에서 논의하기도 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능격성이 특정구문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특정구문의 설명을 위해 잘못 이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sup>9)</sup>.

첫째, 의미상 목적어인데도 주격으로 실현되는 논항을 주격이나 절대격 성분으로 보고, 이러한 구문의 주어를 능격 성분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언어 유형론적 관점의 연구와 관련이 있지만, ‘능격’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를테면, 김민수 (1964)에서는 (12가)의 문장에 대응하는 (12나)와 같은 문장에서 ‘밥이’는 주격을 띤 목적어와 같은 성분이며 ‘내가’는 능격을 띤 감수자라고 하였다.

(12) 가. 내가 밥을 좋아한다.

나. 내가 밥이 좋다.

이런 분석의 문제점은, ‘내가’의 ‘가’가 능격이라면 한국어의 ‘이/가’는 주격이 되기도 하고 능격이 되기도 하는 모순을 갖는 셈이 된다는 점이다.

윤만근의 능격에 대한 논의는 논문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윤만근(1980, 1982)에서는 능격성을 의미상 목적어이면서 주격을 취하는 특성으로 이해한다. 이를테면 (13나)의 문장에서 ‘선녀가’와 같은 성분은 심층에서 목적격이며 표층에서 주격을 지니게 되므로 능격적인 것이라고 보고, 반면에 ‘그가’와 같은 성분은 주제화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13) 가. 그가 선녀를 보았다.

8) 김문오(1997)에서 설정된 자타양용동사의 범주는 능격동사나 중립동사, 중간동사 부류와는 달리 그 외연이 훨씬 더 넓다.

9) 고광주(2001)에서도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나. 그가 꿈에 선녀가 보였다.

그러나, 윤만근(1996)에서는 (13나)와 같은 주격중출 구성에서 '선녀가'는 목적어이지만 주격조사를 취하고 있으므로 절대격으로, 주어인 '그가'는 능격으로 보고 있다. 한국어의 일부 주격중출 구성을 능격-절대격의 구조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격의 한 유형으로서 능격을 한국어 '이/가'에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이/가'가 동시에 능격도 되고 절대격도 될 수는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sup>10)</sup>. 또 한국어에 주격-대격 체계와 능격-절대격의 두 체계가 공존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조건에서 그런지 밝혀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애당초 잘못된 분석인 것이다.

둘째는 능격성을 새로운 주어를 도입하는 자리만듬성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김석득(1980)은 사동문을 능격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형용사문이나 자동사문, 타동사문 등이 새로운 주어를 도입하여 사동문이 될 수 있을 때 그 형용사나 자동사, 타동사 등에 능격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새로운 주어를 도입하여 사동문으로 변환할 수 없는 형용사나 동사는 능격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하여 사동문의 제약을 설명하고 있다. 또, 우형식(1996)에서는 능격성을 형태상의 변화가 없으면서 자동사문이나 타동사문으로 변환될 수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즉, 어떤 동사의 주어가 목적어로 기능전이를 겪으면서 타동구문을 형성할 때, 이를 '능격적 기능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에서의 능격이란 격의 한 유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사문에 대응하는 타동사문의 주어를 능격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무표지 사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국어의 능격성을 어휘적으로 자동사문의 주어와 타동사문의 목적어가 일정하게 대응하는 관계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상억(1970, 1972), 박승윤(1984), 고영근(1986)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법을 모두 가지는 동사를 '능격동사'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타동사로 분화되지 않은 동사들을 하나의 동사부류로 포착해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자동사나 타동사에 속하지 않는 중립동사나 중간동사의 개념에 가깝게 된다. 따라서 능격성을 자동사문의 주어와 타동문의 목적어가 일정하게 대응하는 관계로 보면서도, 실제로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형태변화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동사 부류의 특성으로 보는 것은 개념상 혼란을 빚을 수 있다<sup>11)</sup>. 고영근(1986)은 한국어에 능격성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 의미있는 업적이지만 이런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고영근(1986)의 예를 하나만 살펴 보기로 하자.

(14)가. 東寧을 흐마 아스샤 구루미 비취여늘 日官을 종흐시니 <용비어천가42>

나. 열두 大劫이 츠거사 蓮花 | 프거든 <월석 8:75>

고영근(1986)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세국어 자동사는 자동사 표지 '-거-', 타동사는 타동사 표지 '-어-'를 취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14가)의 밑줄친 서술어는 자동사임

10) “의미상 목적어이면서 주격으로 실현되는 성분이 능격언어의 절대격 성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분이 능격언어에서의 능격 성분에 해당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고광주 (2001:14)의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

11) 콤폴리(1978:391-392)는 이러한 동사들에 대하여 '어휘적 능격성(lexical ergativity)' 이 나타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형태/통사적 능격성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어휘적 능격성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언어 보편적 현상이므로 언어유형론적으로 의미가 없다. (함희진 (2005:420) 참고)



에도 불구하고 타동사 표지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사의 논항이 타동사의 목적어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능격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세국어에 능격동사가 많았고, 중세국어는 능격성과 대격성이 교체되는 단면을 보여준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자동사이면서 주어가 피동작주인 (14나)의 경우에는 타동사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외에 사변적 가설의 수준이지만, 중세 이전시기의 한국어가 능격언어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킹(1997)의 연구가 있다. 킹(1997)은 (15)처럼, 동사가 자동사인 종속절에서 주어의 격표지가 생략되는 경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

(15)가. 이 ㅁ 날 썩기 <석보상절23:32뒤>

나. 부터 오시거늘 보습고 <석보상절24:7뒤>

조사 ‘-이’는 원래 능격(사격) 표지로서 타동사의 주어(A)에만 나타나던 것이었는데, 자동사의 주어로까지 확대된 것이며 중세국어는 과도기적으로 자동사의 주어에 격표지 ‘-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유형론적 능격언어에 부합하는 현상이지만, 이것은 아직 사변적 가설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가설 수준이기는 하지만 중세국어에 통사적 능격성이 존재했음을 주장하는 박진호(1995)의 논의도 있었다. 통사적 능격성이란 앞서도 설명했지만, 간략히 말하면, 문장 접속이나 합성 동사의 경우에 타동사의 목적어와 자동사의 주어가 공유되는 현상이다. 그는 ‘두들겨맞다’와 같은 합성동사들이 당시에 형성된 동사의 화석형이라고 보았다. 만일 이러한 합성동사들이 더 발견된다면 이것 역시 통사적 능격성을 보여 주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능격성을 동사 체계의 하위분류를 위한 의미특성으로 파악하려는 입장 (김영주 1990, 고광주 1994)인데, 이것이 바로 생성문법의 입장에서 보는 능격성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능격성의 개념을 문법관계의 측면보다는 의미역할의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이 유효하려면 능격성이 왜 그러한 의미특성과 관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대체로 관계문법과 생성문법의 이론 틀에서 자동사를 능격동사와 비능격동사로 구분하고, 이들이 통사구조상에서 다르게 실현되는 것임을 입증하려고 한 연구들이다.

## 5. 한국어 능격성 연구에 대한 비판적 지적

한편 한국어에 능격성을 도입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논의들도 적지 않다. 최동주(1989), 김성주(1993), 강명순(2000), 연재훈(1989, 1997, 2005), 함희진(2005) 등이다. 최동주(1989)는 의미상 피동작주가 목적어로 쓰이면서 자동문의 주어표지와 같은 ‘-이/가’로 표지된다면 이는 능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피동작주가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면서 주어 표지 ‘-이/가’로 표지되는 것은 능격성이 아닌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였다. 타당한 지적이다. 김성주(1993)은 한국어에 형태론적 층위의 능격성, 통사론적 층위의 능격성, 담화론적 층위의 능격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고영근(1986)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역시 타당한 지적이다. 강명순(2000)은 능격언어나 대격언어나 하는 유형론적 구분은 기본태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한국어의 수동태에 나타나는 능격성을 가지고 한국

어를 능격언어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논의라고 주장하였다. 수동태에 나타나는 능격성을 가지고 능격언어라고 주장하는 논의가 있다면 그것은 물론 잘못이다. 연재훈(1989)은 ‘능격동사’ 대신 ‘중립동사’를 제안한 논의이고, 연재훈(1997)에서 한국어의 능격성 존재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연재훈(2005)에 와서 고평주(2001)을 비판적으로 논평하면서 한국어와 같은 대격 언어에서 능격동사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생성문법에서 말하는 능격동사는 유형론에서 말하는 ‘능격’과 차이가 있고 오히려 ‘비행위성 자동사’나 ‘비행동주성 자동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함희진(2005)은 한국어 능격성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종합적이고 비판적 고찰로 역시 한국어에 능격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생성문법에서 설정한 능격성의 개념이 유형론적으로 설정된 능격성의 개념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재훈(2005)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6. 자동사의 두 가지 부류와 소위 ‘능격동사’

우리는 앞에서 능격언어에서 보이는 능격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자동사의 두 가지 부류 중의 하나를 ‘능격동사’라고 이름 붙이고, 서로 다른 부류의 자동사가 보이는 이질적 통사행태를 동사의 기저구조를 달리 설정함으로써 해결한 의미 있는 연구가 생성문법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자동사의 두 가지 부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6) 자동사의 두 가지 부류

- 가. 1부류 자동사: 논리적 주어를 논항으로 갖는다 --> 행위성 자동사 (= 비능격동사)  
 나. 2부류 자동사: 논리적 목적어를 논항으로 갖는다 --> 비행위성 자동사 (= 능격동사=비대격동사)

논리적 주어를 취하는 1부류 자동사는 일반적인 대격 언어의 자동사, 즉 우리가 말하는 ‘행위성 자동사’를 말한다. 반면에 논리적 목적어를 취하는 2부류 자동사는 우리가 말하는 ‘비행위성 자동사’를 말하는데, 그 논항이 타동사의 목적어 논항과 동일한 의미 구조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능격동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16가)는 ‘비능격동사’라고 불린다.

대격언어의 자동사가 두 가지의 부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은 펄머터 (Perlmutter 1978)의 관계문법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펄머터는 (16나)의 자동사를 비대격동사 (unaccusative verb)로, (16가)의 자동사를 비능격동사 (unergative verb)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부르시오 (1986)에 이르러 지배결속이론에도 수용되었는데, 여기서는 (16나)의 자동사를 능격동사로, (16가)의 자동사를 비능격동사로 재명명하였다.

대격언어에서 자동사가 하나의 동질적인 부류가 아니라 능격동사와 비능격동사로 구분된다는 가설은 주로 통사적인 현상을 통해 입증되었다. 펄머터 (1978)에서는 네덜란드어에서 능격동사만이 비인칭 수동(impersonal passive)을 허용한다고 주장하였고, 부르시오(1986)에서는 이탈리아어에서 능격동사는 조동사 ‘essere’(be)를 선택하며, 비능격동사는 조동사 ‘avere’ (have)를 선택하고, 영어에서는 능격동사만이 ‘there’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여, 능격동사의 설정을 주장하였다.

한국어에서도 능격동사의 설정을 주장하려면 이러한 통사적인 확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어의 능격동사 논의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기준 확립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다. 이런 점에서 고광주(2001: 52-65)가 제시한 능격동사의 확인 기준 및 특성은 우리의 눈길을 끈다. 고광주는 능격동사의 확인기준으로 의미론적 확인기준과 형태론적 확인기준, 통사론적 확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의미론적 확인기준으로는 명령형 및 청유형의 가능 여부, 행위자에 대한 주어 통제 구문이나 비주어통제 구문의 허용 여부를 들고 있다. 비능격동사는 통제구문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능격동사는 통제구문에 사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고광주 2001:55)

(17) 가. 철수가 [pro 달리려고] 노력했다.

나. 그는 철수에게 [pro 달리라고] 명령했다.

(18) 가. ?\*영희가 [pro 예쁘려고] 노력했다.

나. \*그는 영희에게 [pro 예쁘라고] 명령했다.

이를테면, (17)의 내포절에는 비능격동사가 사용되어 가능하지만, (18)의 내포절에는 능격동사가 사용되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형태론적 확인 기준은 능격동사가 그것의 논항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가 목적어-타동사 관계와 같은 구조를 보이며, 비능격동사가 그것의 논항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는 주어-타동사 관계와 같은 구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형태론적 확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 이에 반해, 고광주(2001: 58-63)가 제시하고 있는 능격동사의 확인을 위한 통사론적 기준은 일목요연하면서도 설득력을 갖는 논증들이다.

첫째, 능격동사와 비능격동사는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을 통하여 구분될 수 있다.

둘째, 장형부정 구문에 나타나는 조사 '-이/가'와 '-을/를' 사이의 교체 현상에서도 능격동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 가. 날씨가 춥지를/가 않는다.

나. 도둑이 잡히지를/가 않는다.

다. 기차가 오지를/가 않는다.

(20) 가. 아이가 울지를/\*가 않는다.

나. 철수가 오지를/\*가 않는다.

다. 아이가 밥을 먹지를/\*가 않는다.

(19)와 같이 능격동사가 쓰인 장형부정 구문에서는 조사의 교체 현상이 일어나는 데 반해서, (20)과 같이 비능격동사나 타동사가 쓰인 장형부정 구문에서는 조사의 교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19다)와 (20나)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오다'라는 동사도 쓰임에 따라 능격동사가 될 수도 있고, 비능격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광주(2001: 72)에서 적절한 부연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동일한 음성 형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취하는 논항의 성격에 따라 능격동사와 비능격동사로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21) 가. 철수가 가다.

나. 시간이 가다.

다. 차가 가다.

(21가)의 동사는 행위자성 자동사로서 비능격동사이고, (21나, 다)의 동사는 비행위자성 자동사로서 능격동사라는 것이다.

셋째, 주격중출 구문의 형성과 관련해서도, 능격동사는 주격중출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반면에, 비능격동사는 그럴 수 없다는 차이를 제시하였다.

넷째, 관용어의 양상에서도 능격동사가 하나의 부류로 포착된다고 하였다. 관용어에 주어-타동사 유형이나 주어-비능격동사의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관용어에 목적어-타동사 유형이나 주어-능격동사 유형이 존재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관형어의 형성 과정에 주어-비능격동사의 형태는 불가능하지만, 주어-능격동사의 형태는 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원리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소위 형태론적 기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이것이 형태론적 기준인지, 통사적인 기준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다섯째, 연속동사(serial verb)의 형성과정에서도 능격동사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타동사와 비능격동사는 연속동사를 형성할 수 있지만, 타동사와 능격동사는 연속동사를 형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강명운(1995)에서는 주어 위치에 있는 절 속에서 어떤 요소를 적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능격동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22) 가. 철수가 그 여자를 만난 것이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다.

나. ?\* [[철수가 ti 만난 것이]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는] 여자i

다. \*[[ ti 그 여자를 만난 것이]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i

(23) 가. 철수가 그 책을 읽은 것이 분명하다.

나. [[철수가 ti 읽은 것이] 분명한] 책i

다. [[ ti 그 책을 읽은 것이] 분명한] 사람i

주어 위치에 있는 절 속에서 어떤 요소를 적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어 조건’(Subject Condition)에 따르면, (22) (나-다)의 경우, ‘괴롭히다’와 같은 타동사의 주어절로부터 명사구가 적출되었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데, (23)에서는 ‘분명하다’가 능격동사이므로 그 논항이 D 구조에서 목적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어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비행위자성 자동사가 보이는 통사적 행태가 일반적 타동사나 행위성 자동사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론의 수정까지도 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유용한 논의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능격언어의 특성이나 언어 유형론적 관점의 능격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논의라고 보는 편이 옳다. 굳이 관련을 찾자면, ‘분명하다’를 능격동사라고 봄으로써, 그 논항이 D구조에서 목적어를 갖는다고 보는 점인데, 이것 역시 능격언어의 특성이 아니라 개별동사의 통사/의미 행태상의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12)</sup>.

12) 술어의 문제 밖에도, 이러한 적출 조건이 한국어에도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는, 고광주(2001:23)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래의 예처럼 주어임에도 적출이 가능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6) [[[ ti tj 발표한] 노래가 ] 히트를 친] 가수i

이러한 연구는, 능격언어에서 보이는 능격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자동사의 두 가지 부류 중의 하나를 ‘능격동사’라고 이름 붙이고, 서로 다른 부류의 자동사가 보이는 이질적 통사행태를 동사의 기저구조를 달리 설정함으로써 해결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7. 한국어에 능격성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형태론적 격현상이나 통사적 관점에서의 능격성이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소위 어휘 의미적 측면에서의 능격성은 세계 거의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일종의 ‘무표적 사동문’ 대응 관계나 중립동사 구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6절에서 살펴 본 생성문법 학자들의 연구는 능격동사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격교체 구문과 같은 예외적 격표지 현상, 단어 형성에서 보이는 특이성, 어휘 의미적인 문법적 특이 현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유형론적으로 능격언어에서 보이는 능격의 개념과는 다른 관점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 능격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거는 한국어 비행위성 자동사의 단독 논항 비행위성 주어(Sp)가 의미적, 구조적으로 타동사의 P와 관련이 있으므로 능격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함희진(2005)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국어에 능격성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을 주장한다. 자동사가 단독 논항으로 행위성 주어(Sa)를 선택하기도 하고 비행위성 주어(Sp)를 선택하기도 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 현상이다. 한국어의 자동사도 의미 특성에 따라 행위성 자동사와 비행위성 자동사로 나눌 수 있지만, 형태적으로 이들의 단독 논항이 다르게 표지되지 않는다. 즉, Sa이든, Sp이든, 모두 주격 ‘-이/가’로 표시된다는 말이다. 결국 격표지를 고려하지 않고 Sa가 A와 의미적 유사성을 보이고 Sp가 P와 의미적 유사성을 보인다고 해서 후자의 경우를 능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능격언어든 대격언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언어 보편적 현상이다. 만일 능격언어에서 Sa가 타동사의 A와 같이 격표지되는 것은 대격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대격언어의 Sp가 타동사의 P처럼 (대격 -을/를)표지된다면 이것은 능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3)</sup>. 그러나 한국어는 일관되게 전형적인 대격 언어 표지를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 능격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이것은 연재훈 (2005), 함희진 (2005)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명순(2000), <국어의 ‘능격성’ 논의와 태 해석>, 《어문연구》 33 (어문연구학회), 5-25.  
강명윤(1995), <주격 보어에 관한 소고> 《생성문법연구》 5-2, 391-417.  
고광주(1994), <국어의 비대격 구문 연구: 비대격 술어의 논항 구조와 통사적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3) 실제로 행위성 자동사의 논항과 비행위성 자동사의 논항이 형태론적으로 달리 표지되는 언어도 있다. 소수의 언어는 행위성 자동사의 논항은 타동사의 A처럼 표지되는 반면에 비행위성 자동사의 논항은 타동사의 O처럼 표지된다. 이러한 언어는 능동언어 (active language), 분열자동사적 (split-intransitive) 언어, 분열주어 (split-S) 언어라고 불리기도 한다 (딕슨 1994: 70-78).

- 고광주(1999), <국어의 능격성에 대한 검토> 《국어의 격과 조사》 도서출판 월인.
- 고광주(2001), 《국어의 능격성 연구》, 도서출판 월인. 273쪽.
- 고영근(1986), <능격성과 국어의 통사구조> 《한글》 192호, 43-76.
- 고영근(1996), <한국어의 타동성과 능격성에 대하여> 제10차 국제 한국어학자회의(ICKL) 발표 요지.
- 김성주(1993), <능격성의 해석과 국어의 현상> 《동원논집》 6 (동국대 대학원), 17-42.
- 김문오(1997), <국어 자타 양용동사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 김민수(1964), 《신국어학》 일조각.
- 김석득(1980), <자리만듬성(능격성, ergativity)과 시킴월(사동문)되기 제약> 《말》 5. 연세대 한국어학당, 35-52.
- 김영주(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preta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딕슨 (Dixon, R. M. W)(1994), Erg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라이온즈 (Lyons, John)(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모라브칙 (Moravcsik, Edith A)(1978), "On the distribution of ergative and accusative patterns", *Lingua* 45: 233-279.
- 모찌카토, 페데리코. (Mozzicato, Federico)(2001), <한국어와 이태리어의 비대격동사의 의미구조에 관한 고찰-사동/기동교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진호(1995), <논항 공유 현상의 유형론과 통시론>. 제22회 국어학 공동연구회 발표 요지.
- 부르시오 (Burzio, L)(1981), Intransitive verbs and Italian auxiliaries, PhD dissertation, MIT.
- 야스이 (安井 謙) 편(1971), 《신언어학 사전》 동경: 연구사.
- 연재훈(1989), <국어 중립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한글》 203호, 165-188.
- 연재훈(1993), <조지아말의 형태론 개관: split ergativity의 한 예> 《언어학》 제15호. 253-261.
-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집, 241-275.
-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107-132.
- 연재훈(2005), <서평논문: 고광주(2001) 국어의 능격성 연구> 《형태론》 7-1: 207-222.
- 우형식(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윤만근(1980), <국어의 중주어는 어떻게 생성되나?> 《언어》 5-2, 67-105.
- 윤만근(1982), <문법기능의 부분적 중첩 (matching)> 《언어》 7-1, 140-164.
- 윤만근(1996), 《생성통사론》 한국문화사.
- 이상억(1970/1999), <국어의 사동.피동구문 연구> 국어연구 26호.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같은 제목으로 집문당에서 1999 출판.
- 이상억(1972), <동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 사동. 피동성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8-2.
- 이준규(1988), <한국어 비대격 동사의 어휘 의미론적 특성>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이향천(1991), <피동의 의미와 기능>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동주(1989), <국어 '능격성' 논의의 문제점> 《주시경학보》 3.
- 콤리 (B. Comrie)(1978) "Ergativity" in W. P. Lehmann (ed.), Syntactic typology. University of Texas Press. 329-394.
- 킹, 러쓰. (King, Ross)(1997), "Towards a History of Transitivity in Korean" ms. paper presented at the Philological Society.
- 크리스탈 (Crystal, D)(1991),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3rd edn. Oxford: Blackwell.
- 펠머터 (Perlmutter, D.M.)(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Proceedings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4: 157-189.
- 페제츠키 (Pesetsky, D)(1982), "Paths and categories", PhD dissertation, MIT.
- 한송화(2000), 《현대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 함희진(2005), <국어의 능격성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태론》 7권 2호, 419-428
- 할리데이 (Halliday, M.A.K)(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1", Journal of Linguistics 3, 37-81.

연 재훈 ([jl@soas.ac.uk](mailto:jl@soas.ac.uk))

(런던대학교 소아스 한국학과 한국어학 교수)

Title in English: Is there ergativity in Korean?: The definition of ergativity and other uses of the term 'ergative'

Name: Jaehoon Yeon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previous research on ergativity in Korean, in which the concept of ergativity has been applied to Korean morpho-syntax. We have investigated the concept of ergativity from the viewpoint of linguistic typology, and claim that there is no ergativity in Korean. Korean is an accusative language, and it is unfortunate to use the term 'ergative' in some constructions in Korean. The term 'ergativity' was used morphologically to refer to the case marking on constituents of a noun phrase, and has been extended to the marking of syntactic functions by particles or adpositions. The term 'ergative' has also been used in a syntactic sense to apply to coreferentiality constraints on the formation of complex sentences, through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In terms of the well defined use of the term, Korean has neither morphological ergativity nor syntactic ergativity. Some scholars, however, have used 'ergative' in further ways, that are sometimes confusing and misleading. One particular unfortunate use of the term 'ergative verb' has been employed in connection with pairs of sentences such as *John moved the stone* and *The stone moved*. The use of 'ergative' in this lexical-semantic/causative sense is quite confusing and misleading, and this misuse

originated from Halliday (1967) and Lyons (1968). If the term 'ergative' is used in this way then every language would show 'ergativity'. We will propose that this relationship can be better captured as either *null-causative* or *neutral verb* constructions. We have also critically reviewed works in generative linguistics in connection with the so-called 'ergative verb' that bring about case alternations in exceptional case-marking construction, long-form negation,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This is another way in which the term 'ergative' is used which differs from the standard definition.

<Key words> ergativity, ergative verb, unaccusative, ergative language, accusative language, absolutive, linguistic typology, null-causative, neutral-verb, case alternation,